

2018년



해외출장 가이드

베트남 호치민 출장자료

【 목 차 】

I. 국가개요	05
II. 정치·사회동향	07
III. 한국과의 주요 이슈	10
IV.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11
V.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21
VI. 투자환경	25
VII. 투자 입지 여건	28
VIII. 기타 유용한 정보	31







1. 국가 개요

□ 일반 개황

국가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수 도	하노이
면 적	330,967 km ² (한반도의 약 1.5배) 남북 1,700km, 해안선 3,200km
인 구	9,270만명(2016년 기준, 베트남 통계청)
남녀 성비	49.4(남) : 50.6(여)
행정구역	5개의 중앙직할시와 58개 성으로 구성
5개 중앙직할시 (2016)	호치민(815만명), 하노이(722만명), 하이퐁(196만명), 껀터(125만명), 다낭(103만명)
공용어	베트남어
인 종	킨족(Kinh, 전인구의 85.72%) 등 54개 민족
종 교 (2013)	종교 인구 약 2400만명 중 불교(45.8%), 카톨릭(27.1%), 개신교(6.3%), 기타 (20.8%) 등
기 후	북부 아열대성, 남부 열대몬순
시 차	한국보다 2시간 늦음(G.M.T + 7시간)
한-베 수교일자	1992.12.22
화폐 단위	베트남동(VND, Vietnamese Dong)
환 율	1US\$ = 22,745 VND(2018. 1.31일 시중은행 매매 기준)
정치제도	베트남 공산당 1당 체제
당서기장	Nguyen Phu Trong(응웬 푸 쯡)
국가주석	Tran Dai Quang(쩨ن 다이 꺽)
국회의장	Nguyen Thi Kim Ngan(응웬티킴응언)
총 리	Nguyen Xuan Phuc(응웬 쑤언 폭)



□ 베트남 역사

시 기	기 간	비 고
1차 중국지배	B.C.111 - AD 972	- 중국 한나라에 복속 - 쑹 자매 봉기
전기 Le(레, 黎)왕조	980 - 1009	- Le Hoan이 송나라를 물리치고 건국
Ly(리, 李) 왕조	1009 - 1225	- 최초의 자주국가 - 이 용상 왕자 고려로 망명. 화산이씨 시조
Tran(전, 陳) 왕조	1225 - 1400	- 몽고침입 격퇴
후기 Le(레, 黎)왕조	1427 - 1789	- Le Loi가 명나라를 격퇴하고 건립
남북 분립기	1789 - 1801	- 북 Trinh(전, 鄭)씨와 남 응원(nguyen, 阮)씨 대립
응원(nguyen, 阮)왕조	1802 - 1859	- 현재의 베트남 영토 확정
프랑스 식민시대	1859 - 1954	- 아르망조약으로 프랑스 보호국으로 전락
대미 항쟁시대	1954 - 1973	- 파리평화협정(종전) - 호치민 사망(1969)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1973 - 현재	- 도이머이정책(1986)



II. 정치 사회 동향

□ 기본 정치 체제

- 사회주의 공화제를 국체 및 정체로 함.
- 공산당은 국가와 사회를 영도하는 유일세력, 국회는 국가 최고권력기관, 국가주석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는 국가 최고행정기관이라고 헌법에 명시됨.

□ 최근 정치동향

- 1986년부터 추진한 도이머이(刷新)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국가발전을 지속 추진함.
- 공산당 지배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체제안정을 위한 국민화합 및 경제개혁을 가속화 중
- 부정부패 척결 지속 추진 및 개혁개방 부작용 해소 노력
 - 개혁개방 추진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당원 및 관료의 부정부패, 각종 범죄 확산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부패방지법’ 제정 등 부패척결을 강조함.
 - 농촌 및 소수민족 등 경제발전 소외계층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농촌 개발, 빈곤퇴치, 소수민족 배려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제 12차 공산당 전당대회(2016.1.20.-28)에서 정부 주요 인사 선출함. 또한 2016-2020년 기간 중의 사회-경제 분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인준함(전당대회는 5년마다 개최).



베트남 2016-2020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내용

경제	2016~2020년 연평균 GDP 성장률	6.5~7%
	2020년 1인당 GDP	3,200~3,500달러
	GDP 대비 공업, 서비스 부문 비중	85%
	총GDP 대비 사회 투자 비율	32~34%
	재정적자 비율	GDP 대비 4% 미만
	총요소생산성(total-factor productivity)의 경제성장률 기여도	30~35%
	2020년 도시화 비율	38~40%
사회	2020년 농업 부문 노동자 비율	총 노동자 수 대비 40%
	2020년 직업훈련을 받은 노동자 비율	총 노동자수 대비 65~70%
	도심 실업률	4% 미만
	의료보험가입 인구 비율	80%
	빈곤가정 비율	연간 1~1.5% 감소
환경	정수사용 인구 비율	도심 지역 95% 비도심 지역 90%
	폐수처리 비율	85%
	삼림피복률	42%

자료원: Resolution No. 142/2016/QH13

□ 대외관계

-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자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개방·개혁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개방적인 외교기조를 유지
- ‘독립, 자존, 평화, 협력, 발전’과 ‘개방, 다양화, 다변화’라는 기본원칙하에 중국, 북한은 물론 미국 EU 등 모든 국가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
- 적극적인 다자외교 전개
 - 1995. 7 ASEAN 가입
 - 1998.11 APEC 가입



- 2007 WTO 가입
- 2008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피선
- 2010 ASEAN 의장국 수임
- 2017 제 25회 APEC 정상회담 개최(베트남 다낭시)

□ 사회적 특징

- 근면, 성실, 인내를 갖춘 민족으로서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함.
-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매우 활발한 사회임.
- 6성조를 가진 베트남어가 공용어이며,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자를 표기에 사용했으나 8세기경 한자의 뜻과 음을 차용해 만든 쯔놈(Chu Nom)을 만들어 이용함. 18세기 말경 예수회 사제들이 쯔놈을 알파벳으로 옮겨 쓰면서 오늘날의 베트남 문자가 일반화됨.
- 공산주의 사회임에도 국민들의 종교 활동을 용인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 도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은 미신적 요소가 상존
- 전국에 450개 이상의 언론매체 및 560종의 인쇄매체가 발행되며, 국영 베트남 TV 이외에 각 성별로 자체방송국을 운영.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언론국)에서 인·허가 및 검열업무를 관장함.



III. 한국과의 주요 이슈

□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

- 1992년 4월 : 양국 연락대표부 설치 합의
- 1992년 8월 : 주 베트남 연락대표부 설치
- 1992년 10월 : 주한 베트남 연락대표부 설치
- 1992년 12월 : 외교관계 수립 및 대사관 설치
- 1993년 11월 : 주 호치민 총영사관 설치

□ 경제협력관계

-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방문이 늘어나고 경제·문화·예술행사를 장애 없이 교환하고 있음.
- 2009년 베트남 수상의 제의로 양국은 경제파트너를 뛰어넘어 정치·외교적 우군을 의미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음.
- 베트남은 한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 중임.
- 한국기업의 노동력 공급원이자 현지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의 중요성은 크게 확대되고, 문화측면에서는 한류의 확산거점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
- 2015년 12월 20일 한·베 FTA가 공식 발효되어 양국의 무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친한정서 및 다문화 가족문제

- 화산 이씨 등 역사적 유대감, 한류열풍 등으로 한국 및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음.
- 최근 다문화가족 문제 등으로 청년층에서는 反韓정서의 조성가능성도 있음.



IV. 경제 동향 및 전망

□ 2018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 동향

- 2018년 1분기 베트남 경제 7.38% 성장하며 양호한 출발
 - '18.1분기(1~3월) 베트남 GDP는 전년동기대비 7.38% 증가함. 특히 그간 다소 부진했던 1차 산업(농림수산업)의 반등과 수출주도형 제조업의 견고한 성장이 높은 성장률을 견인함.
 - 생산소비 활동 역시 증가세를 유지함. 2018년 1~5월 베트남 산업생산지수(IPP)는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베트남 재화·서비스 판매액 증가율은 10.1%를 기록함.
 - 반면 2018년 1~5월 기준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규투자건수 1076건, 총 투자액 99억 달러로, 투자액 기준 전년동기대비 18.3% 감소함.
 - 2018년 1~5월 기준 베트남의 수출액은 930억 달러, 수입액은 897억 달러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15.8%, 8.2% 증가함.

□ 2018년 베트남 경제 전망

- (GDP) 베트남, 2018년 GDP 성장률 6.5~6.7% 목표
 - 2017년 11월 10일, 베트남 국회는 2018년 사회-경제 개발 계획안을 통과 시킴. 동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은 GDP 성장률 6.5~6.7%, 물가상승률 4% 이내, 수출액 7~8% 증가 등을 2018년 베트남 주요 경제 목표로 삼음.
 - 국제통화기금(IMF), 월드뱅크(WB), 아시아개발은행(ADB)등 주요 글로벌 경제기관들 역시 2018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6.3%~6.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2018년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목표

GDP 성장률	6.5~6.7%
수출 증가율	7~8%
무역적자 비율	수출액의 3% 미만
사회개발투자 비율	총 GDP 대비 33~34%
빈곤가정 비율	1~3% 감소
도심지역 실업률	4% 이하
의료보험 가입 비율	총 인구의 85.2%

자료원 : 베트남 정부 홈페이지

2018년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전망

	2014	2015	2016	2017	2018f
GDP 성장률(%)	5.98	6.68	6.21	6.8	6.3
1인당 GDP(달러)	2,051	2,109	2,215	2,385	2,460
소비자 물가상승률(%)	4.1	0.6	2.7	3.53	4.8
산업생산증가율(%)	7.6	9.8	7.5	9.4	6.5
동-달러 환율(VND)	21,405	22540	22,790	22,735	-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IMF(국제통화기금), EIU, Vietcombank

- (수출) 2018년 선진국 경기회복 전망은 베트남 수출에 긍정적 신호
 - 2018년에도 베트남의 수출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베트남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가 내년에도 회복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IMF(국제통화기금)는 '17.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를 통해 2018년 선진국 경제가 올해에 이어서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 베트남의 무역 구조는 중국, 한국 등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 및 가공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수출 실적은 선진국 경기에 큰 영향을 받음.
- 주력 수출 품목인 휴대폰, 전자제품, 의류, 신발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외투기업들의 현지 생산활동 역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FDI) 외국인투자의 지속 유입이 베트남 경제성장 견인할 것

- 당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TPP 최대 수혜국으로 언급되었던 베트남은 외국기업 투자자금 유입 지연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대내외적 투자환경 개선 노력, 이미 다수 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낮은 인건비 등의 이점을 활용한 대베트남 투자는 지속 증가 추세임.
- 2017.1~12월 기준, 대베트남 외국인 총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47.1% 증가한 35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투자 이행 금액 역시 전년보다 10.8% 증가한 175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 금액을 뛰어넘음.

FDI부문이 베트남 GDP에 미치는 영향



자료원 : 월드뱅크

- (물가 및 소비) 최저임금상승, 베트남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 등이 국내 수요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2018년 베트남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소폭 오를 전망. 정부 정책에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이 물가 상승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 덕분에 2018년 물가 상승률은 4%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안정적 물가 유지와 더불어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는 민간부문 소비지출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외환시장) 주요국의 경제 회복세와 완만한 통화정책 정상화로 동화 가치 안정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통화정책이 완만하게 이뤄질 전망이며, 타 국가 대비 해외 단기 자본에 크게 예측돼 있지 않는 베트남 경제 구조상 이로 인한 동화 가치 절하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또한 선진국 경기 개선에 따른 교역량 증가와 무역 흑자 기조 유지 등이 동화 가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 금융감독위원회는 2018년 세 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Fed (미연준)의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약 1.5~2%의 동화 평가절하(미화 대비 베트남동 환율 상승)가 수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봄.

-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공부채 증대 등 잠재 리스크 상존
 - 내년도 베트남 경제 대외 리스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미국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출·투자 둔화가 꼽히며, 대내 리스크는 국영기업(SOE) 민영화 속도 지연, 은행 부실채권(NPL) 처리 문제, 높은 공공부채 비율 등이 존재함.
 -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요인들이 2018년 베트남 경제 성장 발목을 잡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 2017년 베트남 경제 회고

- 2017년 베트남 경제, 6.81% 성장률 달성
 - * 정부 목표치(6.7%)를 뛰어넘는 성과이자 2011년 이래 최고 경제 성장률임.
- 베트남 제조업 14.4% GDP 성장률 달성, 2011년 이래 최고치
 - *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전자제품 제조업 생산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함.
- 베트남 수출액 2,137억 달러, 수입액 2111억 달러 기록
 - * 베트남 사상 최초로 교역액 4,000억 달러를 돌파함.
- 외국인투자(FDI) 359억 달러 유치, 2009년 이래 최대 성과
 - * 투자이행(도착)금액 역시 175억 달러로 최대 실적을 기록함.
- 외국인방문객 1,292만 명 유치(전년대비 29.1% 증가)
 - * 1위 중국 401만명(48.6% 증가), 2위 한국 242만명(56.4% 증가)
- 신규 기업 수 12만 6859개, 전년대비 15.2% 증가
 - * 역대 최고 신규기업수를 기록한 2016년 기록(110,100개)을 경신함.
- 베트남 증시(VNINDEX) 984.24 기록, 10년 이래 최고 수치
 - * Vinamilk, Sabeco 등 베트남 대기업 주식/지분 거래 활발
- 기업하기 좋은 나라 82위 → 68위로 도약(WB Doing Business 2018)

□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가. 개황

- 베트남 수출입 규모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꾸준한 증가, FTA 확장을 통한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가속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17년 한 해 베트남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1% 증가한 2,137억 달러, 수입액은 전년 대비 20.8% 증가한 2,110억 달러를 기록함.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5
수 출	1,500.4	1,624.4	1,759.4	2137.7	930.9
수 입	1,480.6	1,656.1	1,732.6	2110.9	897
무역수지	19.8	-31.7	27	27	33.9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나. 수 출

- 베트남 대외수출은 각종 전화기 및 부품, 섬유·직물제품, 신발류, 전기전자제품·부품, 신발류가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주종을 이룸
- 미국과의 무역협정 발효 직후인 2002년부터 대미 섬유·의류제품 수출이 급증하여 미국이 베트남의 1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함.
- 최근 베트남 수출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징으로는 2014년 이후 휴대전화가 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하여, 전기전자 산업이 베트남 수출을 주도하는 핵심 품목 및 산업으로 자리 매김함.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품 목 명	2014	2015	2016	2017	2018.5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3,607	30,176	34,505	45,085	19,480
전기전자제품/부품	11,440	15,610	18,480	25,882	10,883
섬유·직물제품	20,949	22,815	23,562	25,928	10,682
신발류	10,340	12,011	10,480	14,637	6,101
기계·플랜트 및 부품	7,314	8,168	9,330	12,785	6,428
수산물	7,836	6,573	7,019	8,353	3,146
목제품	6,232	6,899	6,916	7,604	3,337
수송수단 및 부품	5,627	5,844	5,985	6,967	3,253
캐슈넛	2,012	2,403	2,857	3,521	1,396



채 소	1,467	1,850	2,402	3,517	1,669
기 타	53,362	49,763	54,406	59,491	26,715
총 수출액	150,186	162,112	175,942	213,770	93,090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 주 : 2017년 순위 기준

베트남의 주요 수출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순번	국가명	2014	2015	2016	2017	2018.5
1	미 국	28,656	33,480	38,464	41,608	17,647
2	중 국	14,906	17,141	21,970	35,463	13,803
3	일 본	14,704	14,137	14,677	16,841	7,392
4	한 국	7,144	8,932	11,419	14,823	7,197
5	홍 콩	5,203	6,965	6,091	7,583	3,203
6	네덜란드	3,769	4,762	6,014	7,106	2,959
7	독 일	5,185	5,705	5,959	6,364	2,852
8	영 국	3,652	4,649	4,899	5,424	2,233
9	UAE	4,628	5,695	5,000	5,030	2,403
10	태 국	3,476	3,176	3,693	4,786	2,21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주 : 2017년 순위 기준

다. 수 입

-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은 산업화 단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기계·설비 및 부품, 석유화학 제품, 철강제품, 기타 원부자재 등 완제품 생산을 위한 각종 중간재·자본재가 중심을 이룸
- 아울러 베트남의 '수출거점형' 제조업의 높은 수출증가율과 부품소재 산업 등 저변산업이 취약해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을 촉진하는 양상임.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품 목 명	2014	2015	2016	2017	2018.5
기계/플랜트 및 부품	22,500	27,594	28,085	37,501	13,004
전자제품 및 컴퓨터	18,722	23,125	27,775	33,638	16,138
각종 전화기 및 부품	8,476	10,595	10,559	16,182	5,185
의류(원단)	9,428	10,156	10,497	11,446	5,063
철강제품	7,775	7,492	8,024	9,100	4,027
플라스틱 원료	6,317	5,958	6,283	7,355	3,426
유류제품	7,665	5,342	4,714	7,006	3,619
식물 및 의류 원부자재	4,692	5,004	5,097	5,464	2,337
기타 금속	3,434	4,136	4,804	5,445	2,751
자동차 및 부품파트	3,171	3,782	4,400	5,327	1,438
기 타	55,867	62,465	63,024	72,632	32,713
총 수입액	148,047	165,649	173,262	211,096	89,701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주 : 2017년 순위 기준

베트남의 국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번	국가명	2014	2015	2016	2017	2018.5
1	중 국	43,868	49,527	49,930	58,229	24,961
2	한 국	21,736	27,614	32,034	46,734	18,769
3	일 본	12,909	14,367	15,034	16,592	7,323
4	대 만	11,085	10,993	11,221	12,707	5,297
5	태 국	7,119	8,284	8,796	10,495	4,400
6	미 국	6,284	7,796	8,708	9,203	4,672
7	말레이시아	4,193	4,201	5,114	5,860	3,238
8	싱가포르	6,827	6,038	4,709	5,301	2,026
9	인도네시아	2,497	2,743	2,971	3,640	1,721
10	독 일	2,623	3,213	2,828	3,170	1,364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 주 : 2017년 순위 기준



□ 외국인 투자동향

가. 개 황

-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9년 세계 경기 침체 및 베트남 국내 경제 불안에 따라 잠시 주춤했지만 2011년 이후 증가 위주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꾸준한 자금이 유입 중.
- 88.1월 ~ 18.5월 누적 기준,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건수 25,691건, 총 투자금액 3,229억 달러로, 금액 기준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함.

연도별 외국인 對베트남 신규 투자 동향

(단위 : 건,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5
신규 투자건수	1,530	1,588	2,013	2,556	2,591	1,076
총 투자금액	22,352	20,231	22,760	24,372	35,884	9,900

자료원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IA) / 주 : 신고금액 기준

- 2007년 WTO 가입에 따라 유통업, 무역업, 요식업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제한을 두었던 분야를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에 기여함(단, 조건부 투자).
- 저임의 노동력을 이용해 원부자재 수입 후 가공, 수출하는 노동집약적 공장 설립형 투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베트남 외국인 투자는 유통·서비스, 프랜차이즈 등으로 다원화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제조업 투자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임.
- *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제조업 비중 : '13년(77%) → '15년(67%) → '17년(44.2%)
- 2015년 개정 투자법에 따라 투자 허가 분야를 명확히 하고, 투자허가 기관을 총리/시·성 인민위원회 계획투자국/공단 운영위원회로 체계화 하는 등 투자환경 지속 개선 중.



나. 국별 투자동향

- '88년 1월 ~ '18년 5월 누적 기준, 한국이 금액 면에서 최대 투자국으로 59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506억 달러), 싱가포르(435억 달러), 대만(318억 달러)이 뒤따르고 있음.
- 최근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과거 봉제·섬유 등 저임금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스마트폰, 가전기기,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양상이며, 유통업·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역시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투자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음.

주요국별 대 베트남 투자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국가명	1988.1.1. ~ 2018. 5.20 누적		2018. 1. 1 ~ 5.20 누적	
	총 건수	총 투자액	신규 건수	총 투자액
한국	6,883	59,455	381	2,625
일본	3,755	50,601	164	1,524
싱가포르	2,048	43,536	78	928
대만	2,544	31,839	46	285
버진아일랜드	762	20,037	14	595
홍콩	1,322	18,701	51	1,113
중국	1,923	12,640	128	680
말레이시아	577	12,398	12	132
태국	493	10,038	8	575
미국	879	9,593	35	219
네덜란드	315	8,351	11	239
전체 합계	25,691	322,989	1,076	9,900

주 : 총 투자액은 증액투자 금액을 포함한 수치 / '88.1월~'18.5월 누적 기준 순위

자료원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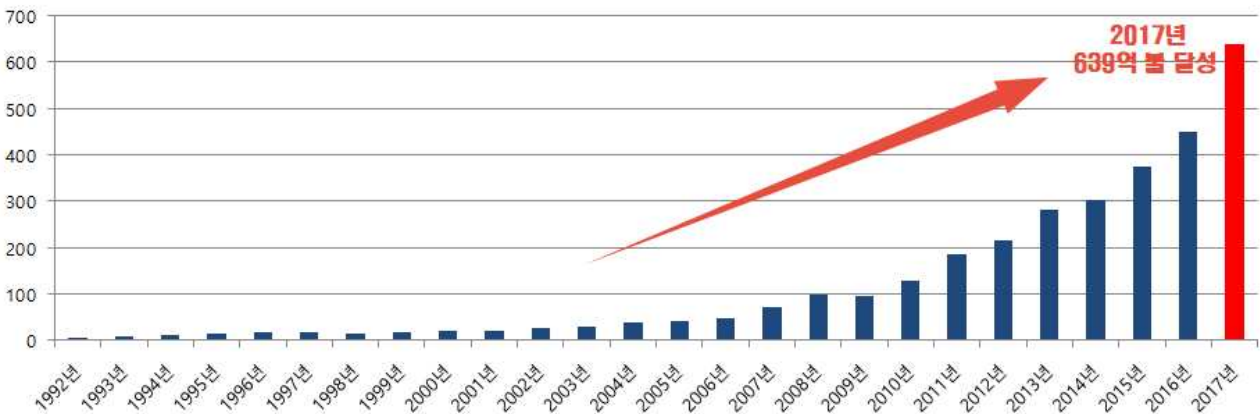
V.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한-베 교역 동향

- 양국간 교역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25년간 120배 이상 증가함.
 - 수교 당시인 1992년 양국 교역 규모는 5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7년 12월 639억 달러를 기록함.
- 한국은 매년 큰 규모의 흑자(2017년 기준 31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 패턴이 점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출 품목은 점차 다양화될 것으로 보이며 EU-베트남 FTA, 한-베트남 FTA, AEC(아세안경제공동체) 등 베트남의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한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국의 교역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 베트남 교역 규모 추이

(단위 : 억 달러)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대비증가율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5
수 출	22,333(5.9)	27,771(24.2)	32,630(17.5)	47,749(46.3)	19,631(3.5)
수 입	7,989(11.3)	9,805(22.7)	12,495(27.4)	16,176(29.5)	7,856(29)
무역수지	14,344	17,965	20,135	31,573	11,77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 품목

- 대 베트남 수출은 한국의 현지 투자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이들 투자기업들의 각종 설비류·원부자재 수요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며, 이외에도 베트남 신도시 개발계획 추진 등 건축, 건설경기 활성화 관련 품목 수출도 증가함.
-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 상위 품목을 보면, 원부자재 및 자본재의 수출 비중이 소비재보다 절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최대 투자 산업인 전자, 섬유 봉제 관련 품목 비중이 높음. 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기구부품, 석유제품 제품 등임.
- 최근 한류를 이용하여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으나, 베트남 내수소비시장 경쟁 심화로 기대만큼의 증가세는 보이고 있지 않음
- 한국-베트남 FTA(2015년 12월 발효)는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고 원산지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품 목 명	2014	2015	2016	2017	2018.5
반도체	2,789	2,871	4,574	9,235	4,82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97	1,266	2,514	7,367	2,754
무선통신기기	2,271	4,249	5,192	3,286	1,177
기구부품	938	1,233	1,657	2,612	886
석유제품	600	328	1,093	1,978	1,216
합성수지	978	8,977	1,203	1,442	653
기타 기계류	456	670	594	1,427	323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9	127	125	1,300	155
플라스틱 제품	508	740	744	1,152	467
편직물	978	897	1,077	1,118	462
기 타	13,206	7,312	14,955	18,808	6,712
합 계	22,352	27,773	32,651	47749	19,63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 주 : 2017년 순위 기준

□ 주요 수입 품목

-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목은 섬유제품, IT기기, 광물성연료, 수산물, 임산물, 신변잡화 등으로 수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섬유의류제품, IT기기, 신변잡화 등 공산품 수입은 주로 현지 한국투자 기업들로부터의 역수입이 주류를 이룸.
- 2017년 기준 베트남으로부터의 5대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의류, 신변잡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컴퓨터이며 총 수입액 대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 이외에도 베트남의 다양한 농·수산물도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한-베 FTA체결을 통해 보다 많은 베트남 제품이 수입될 것으로 전망.

한국의 대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품 목 명	2014	2015	2016	2017	2018.5
무선통신기기	292	1,471	3,145	3,964	2,090
의 류	2,160	2,220	2,449	2,874	1,211
신변잡화	506	526	642	797	43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03	132	56	604	508
컴퓨터	174	400	552	560	233
목재류	350	348	428	511	306
기구부품	104	205	268	496	167
영상기기	83	150	340	400	175
반도체	127	111	123	374	180
산업용 전기기기	151	223	287	317	168
기 타	3,840	4,017	4,205	5,279	2,386
합 계	7,990	9,803	12,495	16,176	7,85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3단위 기준) / 주 : 2017년 순위 기준



VI. 투자 환경

□ 긍정적 투자환경

- 정치사회적 안정성
 - 베트남은 중국, 인도 및 ASEAN 국가 중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베트남 공산당 1당 체제일 뿐 만 아니라 유교문화권 국가로 종교적인 갈등이 거의 없음.
-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
 -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인구(약 9,500만 명), 높은 젊은 인구 비중(30세 이하 인구 50%이상) 등 미래발전형 인구 구조를 가졌으며, 문맹률이 3%미만임.
 - 여타 노동자 대비 근면성과 손재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며, 생산직 초임이 인근 국가에 비해 저렴함.
- China Risk 회피를 위한 대체 생산거점
 -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국가적, 경제적 위험 발생 시 안정적인 상품공급을 받기 위한 Risk 관리차원에서 베트남은 각광을 받고 있음.
 - 일본기업들은 China+1의 전략 하에 캐논 등 전자/부품회사들이 진출하였으며, 우리기업들은 중국에서의 비용 상승과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이 비우호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대체지로서 베트남을 우선 검토하고 있음.
- 높은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른 시장 유망성
 - 2008년 1인당 GDP 1,000 달러 수준에 진입한 이후, 2014년 2,000 달러를 넘었으며, 구매력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2020년경에는 인구 1억 명 이상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
 - WTO 가입 이후 서비스 개방 일정에 따라, 유통, 무역,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투자 통합법으로 내



외국인 차별을 없애고, 최근 개정안을 통해 투자 수속 간소화 됨.

- 적극적인 무역 및 경제 협정 참여에 따른 성장 잠재력
 - 베트남은 ATGIA(아세안상품무역협정), ACFTA(중-아세안), AKFTA(한국-아세안), AJCEP(일본-아세안), VJEPA(일본-베트남), AAANFTA(베트남-호주-뉴질랜드), AIFTA(인도-아세안), VCFTA(칠레-베트남), VKFTA(한국-베트남), VEFTA(EU-베트남) 등의 양자간·다자간 FTA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편입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음.
 - 또한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함으로써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되어 이로 인한 다양한 사업기회들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됨.

□ 부정적 투자환경

- 인프라 부족
 - 도로, 항만, 전력 등 사회 기반시설 공급이 외국인 투자수요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서비스의 질도 낮은 수준임.
 - 인프라 구축비용의 대부분을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 및 공적개발 원조로 충당되고 있어, 진행 지연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고급인력 부족
 - 하노이 및 호치민 인근을 제외하고는 외국어구사가 가능한 중간관리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채용직원 자체양성, 기숙사 제공 등 인력관리에 비용이 추가 소요됨.
 - 베트남의 산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높아 숙련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어려우며, 특히 최근 첨단기술 및 전문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 인력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예상.
- 복잡한 행정절차, 행정체제 미흡 및 커미션 문화
 - 국제투명성 기구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175개국 중 119위로 부정부패가 여전히 성행함.

- 대부분의 거래관계에서 커미션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에 수반하는 Under Table Money 관행도 부정적 요소임.
 - 최근 베트남 정부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투표를 진행 하는 등 부정부패를 타파하려 노력 중이나 효과는 아직 미흡 수준임.
 - 세무 제도 및 규정이 미흡하여 공무원 해석에 의존하여 지역별 법규 적용 차이를 보이는 등 비즈니스 마인드가 부족함.
- 투자 및 경영비용 증가
 - 최근 몇 년간 공장건설에 필요한 토지임차료, 종업원들에 대한 인건비, 기타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중.
 - 베트남 정부에서 물가억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나 경제성장 및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투자 및 경영비용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 부품 및 원부자재 수급 애로
 - 지금까지의 외국인 투자가 대부분 임가공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연관 기반산업이 매우 취약함.
 - 원부자재 수입관세가 매우 낮거나 면제된다 하더라도 원자재 적시 공급 및 물류비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국내 소재, 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지원 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나, 세무 법규가 미흡하여, 아직 제한적임.
 - 아직은 낮은 소비, 소비 계층의 분화 미비
 - 베트남은 저소득으로 인한 낮은 구매력과 내수 시장 미발달로 현지 시장 진출 투자는 세밀한 투자 계획 및 일정이 필요함.
 - 베트남 소비자들의 주된 구매 결정 요인은 '가격'임을 명심해야 함.
 - 소비 계층도 최상류층과 일반 계층의 2단계 구조로, 한국 상품의 주 고객인 중상류층 소비자의 형성이 미흡함.
 - 최근 5년간 연평균 6%대의 안정된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 증대로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를 고려하는 소비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산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우리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VII. 투자 입지 여건

□ 입지 선정 요소별 고려요소

- 물류여건
 - 항만, 도로사정이 열악하며, 국내 물류시스템의 미비로 부품원자재 또는 상품의 하역, 운송 등의 물류여건이 매우 좋지 않음.
 - 내륙에 위치한 지역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운송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실제 방문을 해보면 물류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자주 나타남.
 -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기업은 원부자재 조달이 쉬운 하노이-중국 국경 간선도로주변 공단에 위치함.
- 인프라 정비
 - 대부분의 산업공단(IZ, IP)은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음.
 - 일반 시가지나 농촌지역은 토지 임차료는 저렴하지만 인프라 건설에 예상치 못한 경비가 발생함.
- 노동인력 수급
 - 산업발전과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라 노동력 인력수급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함.
 - 특히 주변 공장 완공 시 노동력 확보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문제로 발전하게 됨.
- 현지 자재와 부품조달의 용이성
 - 현지 원자재 공급지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 운송비용이 과다하여 채산성 확보가 어려움
 - 입지 선택 시 진출업종에 소요되는 부품과 자재를 인근지역에서 용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확인이 요구됨..



- 기타 고려요소
 -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성 및 배후시장 여건
 - 최근 대도심 인근 지역, 지방성에서 환경오염유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함.

□ 투자지역선정

- 남부지역 vs 북부지역
 -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1인당 GDP가 높고 소비 문화가 발달한 남부지역(특히 호치민)이 유리함. 반면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임차료와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음.

투자지역으로서의 남부/북부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남부 (호치민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문화 발달 - 높은 1인당 GDP(약 5,500달러) - 자본주의적 비즈니스 관행 - 연관산업의 발달 (특히 섬유, 신발 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상승추세(호치민 인근) - 노사분규의 빈번한 발생 - 높은 토지임차료 (호치민, 동나이 등) - 인력확보 애로(호치민 인근)
북부 (하노이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한 토지임차료 - 노사분규 발생률 미미 - 근로자세 양호 (인내심, 조직 적응력) - 중앙정부 접촉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정비 미흡 - 내수시장의 규모 제한 - 인력 수급 문제 - 연관 산업 미발달

- 공단지역 vs 일반지역
 - 공단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고 공단관리위원회가 인허가 수속을 대행. 임차료가 비싸고 관리비를 부담해야 함.
 - 일반지역은 공단에 비해 인프라나 사업여건이 다소 낙후되어 있으나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임차할 수 있음. 다만 토지임차료와는 별도로 임차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토지보상비를 지방정부에 지불해야함. 개인소지



- 토지의 경우 토지용도, 증빙서류 확인 등 행정부분에서 주의를 요함.
- 외투기업의 경우 정책적으로 공단 외 지역 투자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공단 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반드시 인민위원회에 허가 가능여부 확인 한 후 투자 진행해야 함.

공단과 일반지역 입주사의 비교

구 분	승인기관	장 점	단 점
공단	지방정부 공단관리 위원회	- 인프라 기반 - 인허가 수속 대행 - 물류여건 양호 - 토지보상비 부담없음 - 세관입주 공단은 수출입 통관 편의	- 높은 토지임차료 - 관리비 부담
일반 지역	지방 인민위원회 기획투자부 (DPI)	- 저렴한 토지임차료 - 인력확보 용이 -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	- 인프라 정비 미흡 - 인허가 수속 직접수행 - 물류여건 낙후 - 토지보상비 부담 - 부대비용 발생 가능

- 경제특구
 - 수상이 지정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에서 남부 1개, 북부 5개를 제외한 12개 경제특구가 낙후된 중부에 집중되어 있음(2016년 등록 기준).
 - 법인세 10%를 15년 동안 적용, 원자재/부자재에 대하여 5년간 수입 관세 면제 및 개인소득세 50% 감면 등이 있음.
 - 최근 지역에 따라 적용 우대혜택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전문의가 필요함.
- 입주 지역에 따른 법인세 우대사항
 - 2016년 1월 1부터 일반 법인세는 20%로 낙후된 지역, 특별 낙후 지역, 하이테크 파크 입주 시에 법인세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낙후된 지역의 경우 투자 승인 후 10년간 17%적용되며, 과세이익 발생 후 2년간 법인세 면제, 추가 4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음.

VIII. 기타 유용한 정보

□ 시장특성

- 상당한 시장규모와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인구 9천만 명 이상에 달하는 시장규모와 연평균 6~7% 이상의 고속성장으로 시장규모 지속 확대 추세 중.
 - 2020년 후반에 인구 1억의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국으로서의 역할 기대
- 민영화 진전 불구 국영기업 파워 여전
 - 베트남 국영기업은 베트남 산업에서 50~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전력, 통신, 석유·가스, 방송 등의 분야에서는 거의 100%에 달하는 독점적 구조를 형성 중임.
 - 한편 '16년 말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국영기업 민영화 마스터플랜을 제시했으며, '17년 2월 발효된 관련 법령 공포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주식화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경제력/구매력이 주요 대도시 집중
 - 도/농간, 지역별 소득격차가 심해 고가 브랜드 제품 수요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함.
 -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베트남 평균의 2-3배 수준
- Low/High가 뚜렷한 시장
 - 1인당 국민소득(GDP) 2,200불 정도에 불과하지만 두터운 고소득층이 존재하여 고가품 시장이 발달함. 하지만 대부분 소비자들은 품질보다 가격에 민감함.
 - 소비재의 경우 인근 중국산 밀수제품의 유입으로 인해 가격경쟁이 힘든 실정이나 중국산 제품에 식상한 소비자는 점진적으로 한국산을 선호하는 추세임.

- 높은 브랜드 선호도 및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 일반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지 소비자들의 브랜드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한 편임.
 - 한류와 LG(가전제품, 화장품, 생활 용품 등), 삼성(휴대폰, 가전제품 등), 현대·기아(자동차) 등 주요기업 투자진출 및 월드컵 개최국으로서의 위상 등으로 인해 한국의 국가브랜드는 높음.
 - 유명브랜드 제품의 복제품 또는 유사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지적권 보호 등 정부차원의 규제는 미흡한 실정임.
- 아세안(ASEAN) 상품무역협정관세 적용
 - 아세안 10개국으로부터 수입제품은 상품무역협정(ATIGA)의 적용을 받게 되어 대부분 5% 이내의 낮은 관세가 부과됨.
 - 이에 반해, 한국산 제품(특히 소비재)은 AKFTA(한-아세안, 2007년 발효), VKFTA(한-베, 2015년 발효)에 의하여 일반특혜관세(MFN)에 비하여 낮은 관세를 적용받지만 ATIGA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관세 적용 대상임.

□ 베트남 기후 특성

-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지형 특성상 남과 북의 기후 차이가 큰 편이며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연 평균 1,800mm 정도 기록함.
 - 호치민시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우기(5~10월)와 건기(11~4월)가 6개월씩 교차되며,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미묘한 4계절의 변화가 있어 연말과 연초의 기후가 한국의 늦가을 날씨와 유사함.
 - 북부 지역은 아열대로 연간 온도 차가 커서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차이가 약 20℃에 달하는 지역도 있으나, 남부 지역은 열대 몬순기후로 연간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아 연간 최저 및 최고기온 차는 약 7℃ 임
- 호치민시는 전반적으로 날씨가 더우며 건기(11월-4월) 때와 우기(5월-10월)에 맞는 복장 준비 필요함.
 - 건기(11월~4월) : 날씨가 매우 무더우므로 복장은 여름 복장에 모자나 양산을 준비하면 도움이 됨



- 우기(5월~10월) : 거의 매일 비가 오므로 우산이나 비옷(계절라성 폭우 대비)을 준비하면 도움이 됨

□ 시차 및 근무시간

- 베트남은 GMT+7 시간으로 한국보다 2시간이 늦음(한국이 12:00일 때 베트남은 10:00)
- 관공서와 은행은 주 5일 근무제(월~금)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기업체들은 보통 토요일에도 근무
 -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관공서의 경우 07:30~16:30이며, 일반 기업체는 08:00~17:00임
 - 점심시간은 대개 11:30~13:00 또는 12:00~13:30이며, 점심시간 동안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오침함.
- 상점과 식당 등 업소의 영업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08:00에서 22:00까지며, 야간 업소의 경우 24:00까지 영업

□ 현지활동 참고사항

- 출입국
 - 한국인은 베트남 출국 항공권 및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을 소지 한 경우 1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며, 무비자 입국 후에 현지에서 연장을 하려면 여행사 보증이 필요하며, 30일내 무비자 재입국이 불가함.
 - 입국 시 휴대한 금액이 5,000달러를 상회할 경우 이를 세관신고서에 기재해야 만 출국 시 동 금액 범위 내에서 외화의 반출이 가능함.

* 참고 : 호치민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

· 주소: 161 Nguyen Du St, D.1, Ho Chi Minh

· 전화: (84-28)3829-9398

· 팩스: (84-28)3824-4075



○ 시내교통

- 호치민시에는 지하철(공사 중, 2018년 개통 예정)이 없으며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노선버스가 발달되어 있지 않음.
- 외국인이 용이한 이동 수단은 택시로 요금은 미터제로서 기본요금은 11,000~12,000동으로 회사마다 다소 상이함(공항에서 시내까지 약 18만동 : 9불 수준).
- 주요 택시회사로는 Mai Linh(녹색바탕, 38383838 번호 표시)택시와 VINASUN(하얀 바탕, 하부 녹색, 38272727 번호 표시) 택시가 있음.
- 최근에는 Grab, Uber Vinasun, Ma Linh 등 택시회사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부르는 것이 가능해짐.

○ 환전 및 신용카드

- 화폐 단위 : Vietnam Dong(동, VND로 표기)
- 화폐종류 : 천동, 이천동, 오천동, 만동, 이만동, 오만동, 십만동, 이십만동, 오십만동이 있으며, 모든 지폐에는 호치민 초상이 있음.
- 시내 도처에 있는 환전소나 은행에서 달러를 베트남 동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으며, 최근 은행과 환전소의 환율이 다소 비슷해짐.
- 호텔과 고급식당이외에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많음.

○ 위생 및 질병

- 석회질이 다량 포함된 현지 수돗물 대신 생수사용을 권함.
- 식당에서 음료, 맥주를 시키면 얼음을 넣어 주는데 고급식당이 아닌 경우 얼음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열을 동반하는 열성 급성질환인 뎅기열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치안상태

- 베트남의 치안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보행 중 오토바이 날치기 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 함.
- 야간에는 단독 행동을 삼가고 골목길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매춘, 마약, 도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러



한 행위는 절대 금물임.

○ 팁 관행

- 베트남에는 팁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택시 이용 시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음.
- 벨보이나 호텔메이드에게 2만동(1불정도)을 주는 것이 관행임.

□ 기타 주의 사항

○ 선교활동 금지

- 베트남에서 모든 외국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나, 베트남의 풍속 및 관습에 심하게 위반되는 종교집회 또는 노상의 종교 활동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엄격하게 통제를 받음.
- 특히 외국인의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또는 포교행위는 절대 금하고 있으며, 발각 시 추방 등 강경제재 조치를 받게 됨.

○ 관공서 관행

- 베트남 관공서의 업무처리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에게 환영 받지 못함. 다수의 현지 외국인의 경우 투자 및 무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처리하게 되는데 잦은 서류 보완 요청, 고자세 및 불친절 등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음.



참고 호치민 식당 정보 및 주요 관광지

□ 한식당

식당명	주 소	전 화
큰대문 (한식)	6B Pham Ngoc Thach Dist. 1	(84-28)6228-1592
대장금 (한식, 중식)	1st Fl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Dist.1	(84-28)3825-7974
예가 (한식, 중식)	13th Fl Diamond Plaza, 34 Le Duan st, Dist.1	(84-28)3824-8596
한누리 (한식, 활어회)	11A Ton Duc Thang st, Dist.1	(84-28)3829-4855
대어 (활어회)	11B Ngo Van Nam st, Ben Nghe ward, Dist.1	(84-28)3822-1336
아리랑 (한식)	11-13 Cong Truong Lam Son, Ben Nghe Ward, Dist 1	(84-28)3823-1983

□ 베트남식당

식당명	주 소	전 화
Maxim's Nam An	13-15-17 Dong Khoi St, Dist.1	(84-28)3829-6676
Ngoc Suong(해산물)	172 Nguyen Dinh Chieu st, Dist.1	(84-28)3930-2379
Mandarin	11A Ngo Van Nam St, Dist.1	(84-28)3822-9783
Hoi An	11 Le Thanh Ton St, Dist.1	(84-28)3823-7694
Tib	187 Hai Ba Trung, Dist.3	(84-28)3829-7242
Quan An Ngon	160 Pasteur st, Dist.1	(84-28)3827-7131
Pho 2000(쌀국수)	1-3 Phan Chu Trinh st, Dist.1 (2nd Floor)	(84-28)3822-2788
Pho Hoa(쌀국수)	260c Pasteur St, Dist.3	(84-28)3829-7943



□ 호치민 인근 주요 관광지

구분	사진	주요 포인트	거리
<p>통일궁 (Hoi Truong Thong Nh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5 Nam Ky Khoi Nghia, Dist 1, HCMC 과거 남베트남(자유진영)의 대통령궁으로 현재는 개방되어 관광지, 회의장소로 사용 7:30~11:00, 13:00~16:00 개장(연중무휴) 관람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1시간 소요 입장료(성인) : 30,000VND(약 1.5불) 	<p>호치민 시내 (10분)</p>
<p>전쟁 박물관 (Bao Tang Chien Tran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8 Vo Van Tan, Dist 3, HCMC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 단두대를 비롯해 베트남 전쟁 때 사용되었던 각종 유물 전시 고엽제 피해 및 전쟁의 잔학상을 고발하는 수많은 화보가 있음 7:30~12:00, 13:30~17:00 개장(연중무휴) 입장료 : 15,000VND(0.8USD) 	
<p>호치민 박물관 (Ben Nha Ro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Nguyen Tat Thanh, Dist 4, HCMC 호치민이 생전에 사용하던 각종 유물 전시 프랑스와 중국의 건축양식을 조화시켜 1863년에 완공했으며 한 때 프랑스 총독부 영빈관으로도 사용 7:30~11:30, 13:30~17:00 개장(화~토) 입장료 : 2000VND 	
<p>노틀담 성당 (Nha tho Duc B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Cong xa Paris, Dist 1, HCMC 1880년에 세워진 호치민 시 최대성당 프랑스 식민지배 당시 건축자재를 모두 프랑스에서 공수해 파리 노틀담 성당을 본떠 만들 8:00~10:00, 15:00~16:00 개장(매일) 	
<p>다이아몬드 플라자 (Diamond Plaz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 Le Duan, Dist 1, HCMC POSCO가 지은 호치민시 랜드마크 빌딩 1~층은 백화점이며 나머지는 오피스 및 아파트 KOTRA호치민 무역관 7층 입주 	
<p>비텍스코 (Bitexc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Hai Trieu, Dist 1, HCMC 현대건설이 지은 초고층(68층) 빌딩 스카이라운지를 통해 호치민시를 한 눈에 조망가능 라운지입장료 : 200,000 VND(9USD) 	



<p>벤탄 시장 (Cho Benthan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 Loi, HCMC ▪ 유명한 재래시장으로 전통적 관광명소 ▪ 의류부터 식료품까지 다양한 제품 판매 ▪ 저녁 7시 이후 주변에 야시장(식당, 기념품)이 열림 	
<p>사이공 스퀘어 (Saigon Sqau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7~89 Nam Ky Khoi Nghia, Dist 1 ▪ 7 Ton Duc Thang, Dist 1, HCMC ▪ 176~181 Hai Ba Trung, Dist 1, HCMC ▪ 우리나라의 밀리오레와 유사한 쇼핑센터 ▪ 명품 이미테이션 등을 주로 판매 	
<p>구찌 터널 (Dia Dao Cu C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 Chi Dist, HCMC ▪ 베트남 전쟁 당시 게릴라전에 사용된 터널 ▪ 현재는 관광용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당시 보다는 터널 크기를 다소 크게 조정한 상태 ▪ 입장료 : 약 15불 소요 	<p>5시간 (왕복)</p>
<p>메콩 델타 (Mekong Delt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최대의 곡창지대 (벼의 3모작 가능) ▪ 조그만 배를 타고 메콩 델타의 곳곳을 구경한 후 간단한 기념품 구매 가능 ▪ 투어 비용 : 약 20불(호치민시 여행자 거리 출발) ▪ 여행자 거리 : Pham Ngu Lao st, De Tham st, Dist 1, HCMC 	<p>5시간 (왕복)</p>